

인구수 비례한 사회복지센터 설치 필요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현장보고서를 지난달 18일 공개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입법, 정당 등 29개 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 전달병목과 과로소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 현장보고서는 정경배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장을 비롯해 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민우 차장 등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용인·성남·울산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을 ‘잘못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교육비와 보육료의 업무이 관으로 개학 전까지 일제조사 지급 등 각 부처의 중첩된 복지업무가 상호 조정장치 없이 일선에 부과됐으며, 기초수급의 조건 변경으로 인한 일제 조사업무 등으로 연초의 업무가 폭증했으나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의 잦은 장애 등으로 심각한 업무시간 지연과 근로 시간 외 업무가 가중됐다”며 “전통적인 클라이언트에서 일반시민으로 복지대상 및 업무영역이 확대 적용된 반면,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자격 등은 오히려 강화됨에 따

라 지속적인 악성 민원인이 증가하고, 심지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등으로부터 각종 폭력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위 동료들의 개입 회피 및 사회복지직 업무에 대한 일반 행정직의 협조가 부족했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나머지 인력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전달체계의 혼선 ▲행정직과 복지직의 소통 미흡 및 업무 폭증 ▲복지서비스 중복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사회복지통합

됐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상보호 및 안전의 문제도 심각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약 65%가 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상담자로부터 신체 또는 사회 심리적, 성적, 경제적 폭력이나 괴롭힘 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비대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의 대부분이 클라이언트 생계와 연결되다보니 폭력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진 적체와 낮은 조직 지지도도 지적됐다.

비대위는 “행정직에 비해 읍·면·동 안에서 승진한 사회복지직 관리자가 부족한데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교류나 협력,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개선책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보장조정전문위원회(가칭) 설치 및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등 복지업무 통합 조정 기능 강화 △읍·면·동의 인구 수에 비례해 5급 또는 6급이 총괄 운영하는 사회복지센터 설치 △복지 민원 감사 회의 설치 △일반 행정직 및 다른 직렬 등을 통한 사회복지 업무 수행 협조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조례 변경 및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개선 등 사회복지직렬 설정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사 자살 현장보고서 공개

과도한 업무량 · 전달체계 등 문제 꼽혀

관리망의 적합성 미흡 ▲높은 악성 민원과 심각해지는 신변 위험 등의 안전 문제 ▲조직 구조적 문제-승진 적체와 낮은 조직 지지도 등을 꼽았다.

일명 ‘칼데기’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3개 부처의 292개 복지업무를 1~2명에 불과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비대위가 현장사례를 분석한 결과 하루 동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이 상대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수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어린이집 설치제한, 법적근거 미약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안전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도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종규 감사는 “현재 어린이집 시설 설치 진입 장벽이 매우 낮고 보육을 공공의 영역이 아닌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어린이집 같은 곳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게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이 낮으면 보육서비스 질도 낮을 수밖에 없고, 시설 간 과다경쟁으로 표준보육과정을 벗어나 시설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강대욱 제주국제대 교수는 “과도한 진입제한은 기존 운영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구조를 통한 열악한 기관의 퇴출 통로를 차단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

다. 오순금 제주도 여성정책과장도 “보육품질이 떨어지는 어린이집은 자발적 폐업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며, 신규인가 제한으로 인해 문제 있는 어린이집이 도태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어린이집 인가제한은 감사원에서 확인됐든 현재로서는 법적근거가 미약해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차매노인·발달장애인, 후견제 본격 시행
제주사회복지 1호 시설 탐방(6)
- 사회복지소식 4·5면
전국 장애인수영대회 단체전 1위
이경아·김성진씨, 장애극복대상 수상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제주 장애인 문화예술권 현황과 과제 토론회
- 기획 8면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4)

8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9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59-1377(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 · 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시건강가족지원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재미있는 팝아트! 가족초상화 그리기	선착순 10가정 / 21일 19:00~21:00 센터 3층 강의실 / 참가비 1인 5,000원	725-8005
	제6회 한부모가족캠프 ‘가족사랑Plus 캠프’	아이스 브레이킹, 가족티 만들기, 요리 쿡 파티, 물놀이등	선착순 20가족 모집 / 24~25일(1박2일) 13:00~14:00 제주리조트타운 / 참가비 무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8월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ITQ 마스터과정, 오피스활용하기 등	8월~12월, 복지관 정보화교실/장애인 및 가족대상 무료	702-0295
	성인장애인 재능발굴지원 ‘키움터’	문화·예술·스포츠분야 활동지원 - 4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11명(1인 최대 150만원)지원	1차 : 7월 30 ~ 8월 9일 2차 : 9월 23일 ~ 10월 4일 3차 12월 5일 ~ 12월 18일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정 방문교육	한국어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연중 수시 모집	712-1140
가족사랑상담소	한국형애니어그램 워크샵	교육 및 상담, 사회복지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진행	8월 접수, 9월~10월까지 제주가족사랑상담소 교육실, 교육비 24만원(1,2단계) / 21만원(3단계)	726-3277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	직원채용공고	정규직 요양보호사 모집	~채용시까지 접수 / (구)유평피아호텔	748-0022

치매노인·발달장애인, 후견제 본격 시행

성년후견제 지난달 1일부터 시행...5일 만에 32건 접수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돕는 성년후견제도가 지난달 1일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후견심판청구건수가 32건에 달한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과거 재산관리 중심으로 운영됐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치료와 요양 등 신상에 관해 후견인이 폭넓게 도움

을 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13만8000명), 정신장애인(9만4000명)과 치매노인(57만6000명)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건별 유형을 보면 성년후견 18건, 한정후견 9건, 특정후견 5건이다. 성년후견은 후견인이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취소권을 갖는 것이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리권과 동의권·취소권이 있다.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은 피후견인의 가족과 친척, 친구는 물론이

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청구된 32건에서 후견인 후보자 희망 비율을 보면 가족과 친척 등 친족 후견인을 원한 경우가 75%(25건)이고 전문가 후견인은 3.1%(1명)에 불과했다 후견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민후견인을 희망한 경우는 15.6%(5명)이었다. 전문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하지만 시민 후견인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무보수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법원별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가정법원 7건 청주지법 5건 인천지법 3건, 수원 울산지법 대전가정법원 충주 고양지법 2건, 창원지법 1건 광주가정법원 1건 부천 성남 평택 안산 목포지법 1건 순이었으며, 제주지법에서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역 복지일꾼 ‘한자리에’

제주·서귀포시 지역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



달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주지역대회’가 지난달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복더하기 사랑나누기 혼디드렁 공동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평안전문요양원 고수희 부원장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연계방안’에 대한 주제 강연에 이어 분임토론,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봉 서귀포시장은 “양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처음으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읍·면·동 복지지원원과도 자리를 함께하는 소중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해마다 이 행사를 추진해 제주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함께 고민하고 수립·발전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공자 표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신윤경, 최재흠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홍성희, 박명훈 ▲서귀포시장 표창=오지선.

푸드뱅크 이용자 크게 증가



전년 동기대비 26.9% 증가
기부식품 접수도 크게 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푸드뱅크에서 제공하는 기부식품 이용자들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등 도내 6개 푸드뱅크를 이용한 이들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같은기간 2만8235명보다 7589명(26.9%)늘어난 3만5824명으로 집계됐으며, 기부식품 접수 건수는 29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861건보다 54건(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긴급지원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기부식품(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인 푸드뱅크(마켓) 이용률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배분하던 것을 지난 3월부터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탈락자,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이용대상을 변경하고 홍보를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0월 예정된 나눔대축제 등을 통해 숨은 기부자를 찾아내 표창하고 다양한 형태의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시설 급식비 인상

올 하반기부터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급식비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6500만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도내 아동시설 급식비를 1인당 1일 1000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추경에서 시설생계급여에 따른 주·부식비도 기존 1식당 단가 1583원에서 2069원으로 증액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급식 질이 개선될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기대했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급식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지원하게 돼 현실에 맞지 않고, 아동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공급에 열악해 급식비 인상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도 관계자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지방지 지원과 정부지원 증액으로 급식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급식비 이외에도 학습비·교통비·자립지원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가파도 주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가파도 주민을 위해 지난달 24일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가파도 이동복지관은 복지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가파리 경로당에서 복지 상담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축하공연, 노래자랑, 지역주민 욕구조사, 목욕봉사 등을 진행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본도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소외되어 온 추자 우도 마라가파 비양도 등 도서지역 주민

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8월 추자도, 9월 우도, 10월 추자도, 11월 우도 및 비양도 지역에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이동복지관 평가회를 개최해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생계지원 대상, 최저생계비 120%서 150%로 조정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제주도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관련고시 개정에 따라 생계지원 기준 완화를 위해 기존 최저생계비 120%(4인 기준·185만6000원)이하에서 150%(4인 기준·232만원)이하로 완화했으며,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생계지원의 실효성 제

고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 지원했던 것을 3개월 단위로 확대해 위기가구를 보호하도록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도 개정했다.

긴급지원은 질병이나 실직·휴·폐업·주 소득자 사망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 또는 주변인이 긴급복지담당 공무원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한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7월 식품기탁자

▲안산희씨=고추 11kg ▲공동모금회지정기탁(뉴월드마트 이도점)=쌀 500kg ▲금강축산유통=육류 861kg ▲김치원=김치 41kg ▲대한노인회=장아찌 150kg ▲동원F&B제주=냉장·냉동식품 5672개 ▲무기명=쌀 40kg ▲빵피아모=빵 86봉 ▲삼다유통=삼다수(2L×6) 300팩 ▲서문식품=두부 432모, 콩나물 400개 ▲이든이네=멸치 7.5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야채 18kg ▲전국주부교실제주지부=생필품 300개 ▲제주보리촌=보리빵 47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 150팩 ▲지나가다들른집=빵 6봉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154봉



사회복지협의회 2013년 6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사용액
재가결연후원	370,000	38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485,000	485,000
복지사업후원	1,145,000	431,000
푸드마켓후원	2,795,000	11,395,58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1호 시찰탐방’

(6)제주춘강의원 · 꿈꾸는 지역아동센터

재활병원 1호 ‘제주춘강의원’

지역아동센터 1호 ‘꿈꾸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대한민국 최고의 재활병원으로 일굴 터”



1994년 4월에 개원한 제주춘강의원은 제주 최초의 재활병원이자 최고의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생소한 재활병원이 제주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춘강의원의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춘강이동한 이사장의 산 경험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소아마비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이동한 이사장이 수술 후 몇 년간 국립재활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직접 겪으며 장애인들의 의료재활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

고, 11명은 자부담으로 운영할 만큼 탄탄해졌다. 행정직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치료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했으며, 치료사들이 수용 가능한 인원만큼만 환자를 받고 있다 보니 이용인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춘강의원이 가장 강점으로 꼽는 분야는 수중치료다.

2003년 병원을 옮겨 개원할 무렵 수영장처럼 수중운동 치료실을 만들어 그룹으로 진행하는 유럽의 치료방식을 보고 감명을 받은 이동한 이사장이 수소문 끝에 네덜란드 업체를 제주로 섭외, 한 달 가량 상주하면서 만들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시작한 이

1994년 제주시 아라동서 개원

동아시아 최초 수중치료 시작...보바스 치료도 인기

개원서부터 줄곧 함께해 온 한홍주 원무부장은 “재활치료 장비들이 워낙 고가인데다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아 장비구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서울에 있는 중고장비를 어렵사리 구해 치료했으며, 방사선 장비도 6.25때 썼던 걸 사용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대구대학교 등 대학 2군데에서만 물리치료를 양성했으며, 도내에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이 전무했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 제주까지 와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육지부로 올라가 직접 스카우트해오기도 하고, 사육도 제공하면서 시작했다”며 “그때 아라동에 있는 법인(사회복지법인 춘강) 뒤편에 병원이 있었는데 버스가 자주 오질 않는데다 셔틀버스를 제공해도 거의 쓰지 못했고, 눈이 오면 올라갈 수가 없어서 하루 2~30명만 이용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지금이야 하루 120~130여 명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성장했으며, 21명의 직원 중 10명만 인건비 지원을 받

수중운동 치료는 사람의 온도와 흡사한 38도를 유지한 물속에 들어가 부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근력강화를 꾀한다. 한 부장은 “이용자들이 물속에서 하는 치료를 좋아한다.

다른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수중치료 소문을 듣고 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뇌졸중 환자나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이들의 자세교정을 해주는 치료인 보바스 치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이다 보니 중병환자도 길어야 1주일 치료받으면 퇴원해야 하는 일반병원과는 다르다. 대부분 장기 환자이기 때문에 일주일 시간표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한다.

문의=745-8800



아이들의 ‘특별한’ 꿈이 자라나는 곳



꿈꾸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연 계기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나 지역사회서 방임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제현우 전 대표가 제주로 발령받아 오게 되며 육지부의 공부방 시스템을 제주에 도입했다.

유정훈 센터장은 “그 당시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없는데다 부모들은 늦게 오고, 라면 끓여먹으며 다치는 일도 많았다. 그래서 평일에 모이라고 하니 주변 친구들과 함께 오기 시작했고, 같이 간식도 먹고, 학교숙제도 하고 알림장 보고 준비물도 챙기며 시작했던 게 공부방의 기초서비스가

로 구성해 숙제지도나 도서, 논술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과 연계해 동화책 읽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이가 있는지를 묻자 유 센터장은 “지금은 대학생이 된 여학생이 있다. 같이 돌봐줬던 건 아니지만 전 대표님을 잘 따랐던 학생이다. 원래 전공에서 사회복지로 전과해 공부하고 있는데, 자주 들러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돌봐주곤 한다. 이 친구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어도 잘 성장했겠지만, 이곳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된 것 같

2001년 5월 꿈꾸는 공부방으로 시작

꾸준한 신뢰 쌓으며 설립초기 어려움 극복

됐다”며 “초기만 하더라도 공부방 개념도 없고,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시다보니 ‘교회서 아이들 모아놓고 선교하는 거 아니냐’며 데리고 가버리는 등 오해도 많이 받았다”며 꿈꾸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의 ‘탄생비화’를 설명했다. 설립 초기에는 40~50명의 아동이 이용했으나, 오려고 하는 아동들이 더 많아 공간, 인력 등의 문제로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

센터 초기의 어려움은 꾸준히 쌓은 신뢰로 허물어졌다. 유 센터장은 “제주지역의 특유의 문화가 있어 시간이 지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이다보니 신뢰를 얻게 됐다. 동정과 시혜적인 시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 주민들이 믿어줬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제주사회가 인식을 함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문화교실을 비롯해 열린교실, 밥상공동체, 보건지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5개 영역으로 운영 중이다. 열린교실의 경우 지역 대학생들을 멘토단으

다”며 “이렇듯 졸업한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오는데, 고향 같은 느낌으로 기억해주고 다시 찾는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고 말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유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아이들 분리되지 않고, 갈 곳이 많아져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면 없어져도 상관없다”며 “이곳에 온 모든 아동들은 특별하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세상에 누구보다 존엄한 존재라는 걸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센터의 운영가치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751-0050



제주장애인수영연맹, 전국 장애인수영대회 단체전 1위

제주지사배 전국장애인 수영 대회 개최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 수영대회가 지난달 13일 서귀포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선수를 비롯해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수영연맹 임태봉 회장은 “이번 대회는 공식기록인증을 비롯해 MQS라고 하는 전국체전 최소 자격기준까지 인정받는 공신력을 갖춘 대회로 격상됐다”며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지원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초·중·고·일반부로 나뉘어 자유형 평형 접영 등의 경기가 장애유형별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제주자치도는 30명의 장애인 수영선수가 참가해 단체전 1위를 차지했으며, 최우수 선수로는 자유형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부산장애인체육회 소속 권현 선수가 차지했다.



위기 장애인가족 위한 솔루션위원회 개최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봉금)는 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5일 제1회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관공서 및 복지기관들과 ‘위기 장애인가족 협력지원 네트워크’ 협약을 맺으면서 구성된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솔루션위원회는 위기 장애인가족 사례에 대해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관합동 다울봉사회 동광호도마을 찾아 봉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민·관합동 다울봉사회를 조직하고 지난달 6일 동광호도마을(원장 부재옥)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 29명,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회장 김성언)의 한의나눔봉사단 회원 20명,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지회장 고신관) 직원 15명 등 64명으로 구성된 다울봉사회는 이날 동광호도마을 입소 어르신 70명과 지역어르신들에게 침술 등 의료봉사와 시설 내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품권 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표 김재수)는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영식)에 현금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후원했으며, 일일급식에 나서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소/식/마/당

여성중앙회, 제주시희망원 닭죽 제공



여성중앙회 제주지부(사)회장 김정자는 제주시희망원(원장 박정해)을 방문해 희망원 이용인 100명에게 닭죽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김정자 회장은 “더운 날씨였지만 이용인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게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노숙인을 위해 귀한 닭죽 식사를 제공해준 여성중앙회 봉사단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가톨릭주간보호, 2박 3일 담양나들이



제주가톨릭주간보호센터(원장 최영열)는 이용인들의 사회성 향상과 새로운 경험을 위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담양일대를 체험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는 제주청년회의소 회원 8명도 여행에 직접 동행해 이용인들의 지역사회 내 관계형성에 좋은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제장북, 이용가족 대상 ‘가족캠프’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복지관 이용아동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0~21일 1박 2일간 김녕 해수욕장에서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가족캠프는 총 10가족이 참여해 가족 공동의 체험활동을 즐기며 가족구성원 간의 결속을 강화시켰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탐라장애인복지관, 여름캠프 실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은실)은 지난 6월 27~28일 1박 2일 동안 성인 지적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여가선용을 위한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지적장애인 16명과 자원봉사자 및 직원 1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우도 해양공원에서 보트체험 및 보말잡기 체험, 우도올레 걷기 등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사랑소규모요양원, 일일시장 열어



주사랑소규모요양원(원장 한영희)은 지난달 6일 입소 어르신들과 한림 초등학교 가족봉사단과 함께 ‘일일시장 및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각설이 공연을 비롯해 야채, 잡화, 생필품, 맛집 코너 등을 마련해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회상 및 사회활동 경험을 제공했다.

순복음복지관, ‘4성키우기’ 진행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3년도 신청사업인 긍정적 꿈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 ‘4성 키우기’를 화북초등학교 12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 중이다. 지난달 6일은 심성키우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13일은 감성키우기 프로그램으로 도예만들기를 실시했다.

지역아동센터 제주 지원단 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MOU 체결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단장 이정필)은 지난달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센터장 고양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지역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안전한 급식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두 단체는 이번 MOU를 계기로 급식관련 교육 및 간담회, 안전한 급식향상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기타 공동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급식센터에서는 건강한 식습관 확립을



위한 영양·위생교육 자료를 보내 지역아동센터에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 관계자는 “미래의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급식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위탁부모 대상 긍정강화 교육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지난 6월 22일 위탁부모 20여 명을 대상으로 ‘긍정이 이끄는 행복과 성공’이라는 주제로 위탁부모 긍정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를 바꾸는 긍정사고방식, 학습된 무기력과 낙관주의 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자신의 긍정성을 탐색하고 강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서귀포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5~6월동안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서귀포시 보목, 중문, 성산지역을 찾아가 아동학대 실태 및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알리고, 아동권리증진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청각장애인 전용 홈페이지 오픈

수화교육 및 수화영상, 청각장애인 복지정보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회장 박춘근)와 도 수화통역센터는 지난달 26일 1997년 전국최초 수화통역센터 개소일을 기념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새로구축된 홈페이지(www.jejudoaf.com)는 협회와 수화통역센터, 직업지원센터 소개 및 수화프리즘, 영상게시판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화통역과 교육에 관한 신청 및 절차,



각종 영상정보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게시돼 있다.

특히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 특성을 고려해 모든 행사안내를 수화 영상으로 알리고, 그림이나 아이콘 등을 활용해 누구나 정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용자의 인권 및 이해’라는 주제로 장애인인권, 건강한 식습관,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경아·김성진 씨, 장애극복 대상 수상

지적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지난달 4일 서귀포시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체육관에서 2013년 지적장애인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지원회(협회장 김정현)는 지난달 4일 지적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3 지적장애

인의 날 기념식’ 및 ‘제15회 권익복지대회’를 서귀포시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최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 대해 김정현 협회장은 “장애인 당사자주의 원칙에 입각해 지적장애인 스스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당사자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여된 장애극복 대상에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경아 씨와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회 서귀포지부 부설 남자공동생활가정 김성진 씨에게 수여됐다.

제2차 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전문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재해·재난 시 신속하게 자원봉사를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전문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지난 6월 28일 개최했다.

이 봉사단은 전문적인 재능을 갖고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기업, 대학생 등을 전문 자원봉사자로 활용해 의료 법률 교육 문화 환경 안전 외국어 주택 전기 보일러 이·미용 도배 등의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아라복지관, 어르신 생일잔치 마련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28일 아라주공아파트 단지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일잔치를 진행했다.

제주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생일잔치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생신을 맞이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제주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자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협약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박준혁)는 지난달 4일 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자살 위기 대응 및 의뢰 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속한 위기 대응과 향후 자살재시도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제주시지역 내 119, 112, 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 정신보건기관 간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제주에 빠지다4’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지난달 20일 다문화가정 10가정을 초청해 제주문화체험 ‘제주에 빠지다’ 4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테마는 ‘제주의 바다’로 아쿠아플라넷과 해녀박물관을 체험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박선영(여, 8세) 어린이는 “그동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돌고래를 직접 보니 정말 신기했다”고 말했다.



제주를 담은 누름꽃 공예, 제주고장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 누름꽃(압화) 공예 사업단은 지난 1일부터 ‘제주고장’ 자활근로사업을 시작했다.

제주고장은 6개월간의 시범자활근로기간동안 누름꽃 강의와 실습을 통해 제주의 꽃과 식물을 눌러 건조해 액자, 꽃카드 등 제작하여 도내 관광상품 판매점, 여행자가페, 서귀포예술시장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칼럼

가까이 있는 것들



김길웅

수필가·시인

‘원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쓴다. 원대한 포부, 원대한 이상, 원대한 꿈, 원대한 희망...

머릿속에서 보다 높은 곳에 닿으려 하고, 보다 먼 곳에서 얻으려 하는, 인간 본래의 야망을 담고 있는 말이다.

가까이 있는 것의 아름다움

그러다 보니 포부와 이상과 꿈과 희망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관념에 얽매인 나머지 그것들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한다. 그런 인식은 착시를 부르고 착각에 빠져들게도 한다. 오죽 했으면 꿈을 따라 산 너머 무지개를 쫓을까. 황당무계하고 허황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얻으려는 것, 우리가 찾으려는 것, 우리가 탐구하려는 것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우리의 현실, 바로 눈앞에 있음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다.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의 풀에도 꿈이 있다. 싹 틔우고 싹쭉

자라 올라 꽃 피워 열매를 맺는 꿈. 이왕이면 고운 꽃을 피우고 튼실한 열매를 그들은 갈망한다. 아름답기로 그보다 더한 가치는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배울 게 있다. 현실이라는 대지에 뿌리박은 채 단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방식만 다를 뿐, 구만리상공을 나는 새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비상은 인간에게 비행기를 만들게 할 만큼 탐스럽고 매혹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단순한 유희가 아니다. 먹기 위한 그리고 새끼를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노역이다. 몸을 놓고 있는 공중이 탐색과 일의 현장이란 애기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서양 속담에서 한 생명의 치열한 삶의 모습을 읽는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읽어 독후감처럼 얘기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돼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단지 상상이 아닌, 가능한 일이요 가시적인 일로의 재발견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갈구하는 사랑, 그 사랑도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너와 나 사이, 나와 그 사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다. 포부, 이상, 꿈과

희망도 저 멀리 강 건너 산 너머 피안의 경계에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데, 내 발밑에 그 씨앗이 있다.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것 안에서 내 모든 운명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가까운 것에 밀착돼 있다는 의미다. 포부를 갖고 이상과 꿈과 희망을 간직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뤄진다고 믿는다. 인과의 법칙에 대한 확신이다.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이뤄져

생텍쥐페리의 말이 생각난다. “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라 하거나, 일감을 지시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라”

무슨 일을 이루려 함에 중요한 것은 성취동기다. 성취동기는 일을 하게 하는 동인(動因)이다. 일에 필수적인 게 동기부여다. 인간 세상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 만일 된다면 그것은 마구잡이거나 허접스레기거나 부실한 임시변통의 고식지계(姑息之計)에 불과하다.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눈이 이르는 데마다 내가 다가가야 할 자리가 기다리고 있음에 새삼 놀란다. 봉사와 나눔, 그 이상의 그에 더할 이타행(利他行)은 없다. 그 위의 미덕, 그에 더 높은 질서는 없으리라.

모두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이다.

시론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제언



신영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지난 한 해 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처음 받기 시작한 아동은 전국적으로 6900여 명에 이른다. 경제적 곤란이나 가정해체, 학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다. 다행히 그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그들 스스로의 선택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겪는 정신적 고통과 아픔은 클 것으로 생각되며, 더욱이 사춘기를 겪을 시기라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보듬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그룹홈, 최소 대안 손꼽혀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성장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예전의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예방하고 아동 스스로의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함도 곁들여졌다. 가정위탁제도 또한 이러한 아동성장의 최적 공간이 가정이라는 이념에 근거하여 위탁가정이라는 가정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이처럼 아동복지의 패러다임이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 시설에서 가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가정이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정위탁제도처럼 위탁부모가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사들이 5명 내지 7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다. 소그룹화된 가정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중 독립적인 생활능력 향상이나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한 포괄상담 가능,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들에 의한 꿈과 비전의 제시 등은 주요한 장점들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보호대상아동이 친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의 순으로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되기도 했다. 친 가정이나 위탁가정과 같은 가정형성이 어렵다면, 소규모로 함께 사는 공동생활가정이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해 말 기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보호받는 아동은 3만4000여명에 이르며, 이 중 공동생활가정에는 2500여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제주지역에도 5개 공동생활가정에 20명 넘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생활공간을 대부분 운영주체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과 24시간 운영체제이지만 종사자는 2명 이내여서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 등이다. 이 밖에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치유와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지방지 또는 제주도개발공사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생활공간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 확대 및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의 최적의 성장공간이 가정이라는 이념 하에 시작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다.

기고

제주권역재활병원, 미래의 희망으로



박영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 권역재활병원은 2005년 정부의 ‘공공 보건 의료 확충 대책’ 일환으로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05 경기권·06 강원권·07 제주권·08 충청·호남·영남권) 건립이 확정되면서 시작됐다. 또 미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선진시설의 하나로 단순 병원 기능만이 아니라 국립재활원 지방 이전 차원의 종합재활전문센터로서 장애인은 물론 각계각층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재

활치료 시설이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 비교적 발 빠른 야심 찬 행보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귀포 중심지에 시설함으로써 산남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고려했으며 나아가 현재 서귀포에 들어서는 제주웰스케어타운과 연계한 국내·외 의료관광 메카의 성장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을 보면, 공공의료 점유율이 전체 의료기관의 6%, 병상수로는 8.7%로 경제협력기구(OECD)의 평균 70%, 미국의 34%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대학병원(506병상), 서귀포의료원(212병상), 제주의료원(297병상)에 제주권역재활병원(150병상)이 추가되면서 공공병원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 이런 선진국형 장애인시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바로 ‘진보 사회로의 변화’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장애유형에 따른 단계별 치료를 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관련 치료와 교육, 장애인 질환 상담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오는 9월 임시진료를 거쳐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운영 수탁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의 각고의 노력 등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도민과 관광객들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저소득 소외 계층의 장애인에게 실질적 의료혜택이 부여되는 등 공공의료 및 복지행정 실현의 산실이 될것이라 전망한다.

■ ‘제주 장애인 문화예술권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돼야”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이선화 의원실,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공동주최로 ‘제주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문화예술권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지난달 19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제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되짚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이선화 의원실,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공동주최로 ‘제주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문화예술권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지난달 19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주유정 연구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예산과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지만 대구, 전북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풀뿌리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연구원은 누스바움 교수의 “사회적 소수자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불평등과 낙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또 사회는 이들의 예술 활동을 통해 공감능력,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함양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한 뒤 “장애인 정책은 초창

기 재활 등 ‘의료적인 모델’을 탈피해 자립생활 등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모델’로 발전해 왔으며, 이제는 문화예술 운동을 통해 장애인의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모델’로 진화 중에 있다.

기존 사회가 장애에 대한 왜곡된 재현, 낙인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구조를 형

극적으로 참여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향유와 창작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창작공간이나 레지던스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활성화해야 하며, 일본의 ‘하나아트센터’의 예와 같이 지역사회 단체나 기업들에게 단순히 후원만 받을게 아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정재우 주무관은 “장애인문화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면 관현맹인 등 조선시대부터 있어왔으나,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편의시설의 접근성에 국한되었고 말했다.

장애 예술인을 진정한 예술인의 주체라고 대중들에게 인식되기까지는 최근의 일”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엔 장

원은 “도 전체 향토문화예술진흥 계획 소요예산으로 7천402억 원을 추정하고 있으나, 이중 문화복지 예산은 1.45%인 315억 원에 불과하며, 이중 ▲소외계층 문화바우처 활용확대 ▲장애인창작예술지원센터 지원 ▲사회복지시설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장애인문화예술 접근 기회 확대 등 장애인문화예술 진흥사업 예산은 전체예산의 4.5%임을 감안할 때 도의 장애인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10년마다 수립하는 향토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에 장애인문화예술진흥사업을 포함시키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실천전략에 대한 제시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은 ▲복지담당 부서가 아닌 문화예술 정책부서의 관심의 확대가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문화지표 개발 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추가로 개발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장애인문화예술진흥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문화예술 정책, 문화적 모델에 기반 뒤야

제주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시급해

성했다면 문화예술의 표상과 실천을 통해 장애인의 다른 이미지와 관념을 만들어가는 모델이며,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적 모델에 기반을 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 연구원은 “향유와 창작, 고용(또는 직업)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며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실시해 장애인 문화향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들이 문화행정 및 문화예술 기획 활동에 적

라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연구원은 “최근 호주 등 EU를 중심으로 ‘엑세스블 투 어리즘(Accessible Tourism)’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관광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를 엑세스블 투 어리즘 중심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인문화예술 정책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간 미비했던 게 사실이지만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 사업 ▲장애인문화예술 축제지원 등 예산도 확대일로이며, 향유사업과 창작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및 장애인창작활동을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정책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형미 정책자문위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개설



한국사례관리학회와 연계 '사례관리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한국사례관리학회와 함께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기초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달 22일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 복합적이면서도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복지대상자에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2일~24일까지 진

행된 첫 번째 교육은 김성천 한국사례관리학회(중앙대학교 교수)와 조현순 학회 부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이 '사례관리 총론'과 '운영체계 및 간접실천기술 강의'에 대해 각각 교육했으며, 두 번째 교육은 서강대학교 이기연 교수의 '직접실천 기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세 번째 교육은 대림대학교 유명이 교수가 '사례적용 교육'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초과정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공개컨퍼런스와 심화과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손 모아 함께 뜻 이루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손뜻모아봉사회' 창립 10주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소속 '손뜻모아봉사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손뜻모아봉사회(회장 김여옥)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자 기초 교육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

주중에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모여 '손을 모아 함께 뜻을 이루자'는 의미로 시작한 손뜻모아봉사회는 지난 2003년 7월 23일 결성돼 지금까지

매월 제주장애인요양원을 비롯해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한아름요양원 등에서 이·미용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제주시 이도1동 고려회관에서 열린 10주년 기념 창립기념회에서 김여옥 회장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회에서 문영호 부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임정숙, 이무자 회원이 손뜻모아봉사회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4) - '사회적기업 일배움터를 찾아서'

무더운 한여름, 도심 속 힐링 필요하다면 'Flove(플로베)'로 오세요



▲몽생이 기자단이 사회적기업 일배움터가 운영하는 플로베를 방문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이번달 몽생이 기자단이 찾아간 곳은 사회적기업 일배움터가 운영하는 'Flove(플로베)'입니다. 이곳은 취직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세상과 소통해 나가는 아름다운 카페로 'Flove(플로베)'는 Flower와 Love가 합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료를 만들거나, 서빙을 하는 일을 장애인들이 직접 하고 있다고 편견을 가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미소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 일하는 미소가 마치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이랑 닮았습니다.

'Flove(플로베)'의 독특한 점은, 일배움터의 원예사업단 '푸른세상'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도자기그릇이나, 도자기차잔 등의 도자기 작품에 음식을 담아서 서빙을 해주며, 아름다운 꽃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마음과 다양한 활동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Flove(플로베)'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일배움터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일배움터에서 장애인이 할 수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생

각하다 'Flove(플로베)'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배움터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자신들의 가게에 취업을 시켜주며, 장애인들이 세상의 편견없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친 요즘, 편견을 버리고 'Flove(플로베)'에 가서 차라도 한잔하는 게 어떨까요?

동영상 시청
QR코드 스캔 =>



※ 이 영상물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외이웃에게 '정성 가득, 사랑 가득' 식사 선물

고산농협 베이비부머봉사단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활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 베이비부머봉사단 소속 고산농협봉사단은 지난달 15일 고산리 한장동 마을회관에서 저소득층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고산농협봉사단 회원 10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을 준비했다.

고산농협봉사단 성진영 대표는 "더운 날씨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있었다"라며 "지속적인 무료급식 활동을 통



해 노인건강증진은 물론 경로사상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고산농협 직원으로 구성된 고산농협봉사단은 정기적으로

밀반찬 배달, 독거노인 가사도움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찾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월 1회 고산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진행하고 있다.